

# 에이즈의 치료



오명돈 / 서울대 의대 교수

에이즈는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치료를 받으면 혈액내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면역 기능이 회복되어 기회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도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만성병입니다.

**에이즈** 는 치료되는 병입니다. 이 말은 환자나 보호자를 위로하기 위한 거짓이 아닙니다. 불과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이즈는 별다른 치료법이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1996년에 에이즈바이러스를 치료할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습니다. 이제 에이즈가 정복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예측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이즈바이러스 치료제는 10가지가 넘습니다. 에이즈가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981년의 일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에이즈의 원인이 바이러스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치료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로, 원인바이러스가 밝혀지고(1993), 감염자를 찾아낼 수 있는 검사법이 개발되었습니다(1995), 치료제인 지도부딘이 개발된 것은 1987년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인류는 꾸준히 에이즈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개발된 단백질해효소억제제는 에이즈바이러스에 대한 효

과가 매우 탁월합니다. 이것이 개발된 덕분에 1996년에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에이즈 치료법이란 여러가지 약을 동시에 투여하는 "칵테일" 요법입니다. 칵테일 치료를 하면 한가지 약을 쓸 때보다 에이즈바이러스를 더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 약을 쓰면 에이즈바이러스가 쉽게 내성을 얻게 되지만, 칵테일 치료를 하면 내성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칵테일 치료를 받고 에이즈가 완치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은 "베를린 환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감염된 직후부터 칵테일 치료(hydroxyurea+ddI+indinavir)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2주만에 바이러스가 혈액에서 사라지자 환자가 스스로 약을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바이러스가 혈중에 나타났고, 칵테일 치료를 다시 시작하자 바이러스가 혈중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4개월 후(정확히 176일간 치료함)에는 간염이 생

겨서 약을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카테일 치료를 중단하였는데, 이번에는 혈중에 에이즈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베를린 환자는 약을 끊은지 약 2년(정확히 551일)이 지났는데 바이러스가 전혀 혈중에서 검출되지 않습니다. 이 베를린 환자와 마찬가지로 감염 초기에 카테일 치료를 받고, 혈중에서 바이러스가 없어진 다음에 약을 끊었는데, 1년 이상 다시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는 환자가 미국에도 2명이 더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고 싶은 요점은 감염된 초기에 치료를 시작한다면 "베를린 환자"처럼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에 에이즈에 걸릴만한 성접촉을 한 다음 2-4주만에 열이 나거나, 독감 증세가 있으면 반드시 에이즈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진단이 내려져서, 카테일 치료를 받는다면 에이즈를 완치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지 수년이 지난 다음에 치료를 시작한 환자들도 카테일 치료를 하면 병이 낫습니다. 다시 말하면, 카테일 치료로 환자의 혈중에서 에이즈바이러스는 사라지고, 환자의 면역 기능은 회복됩

니다. 이런 효과는 카테일 치료를 받은 환자들중 70-80%에서 나타납니다. 면역 기능은 혈액에서 보조 림프구(helper lymphocyte, CD4+ cell)의 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카테일 치료를 받은 환자는 보조림프구의 수가 증가합니다. 미국에는 카테일 치료를 받은지 3년이 지난 환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보조림프구는 치료전보다 300개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조림프구의 수가 증가하면 더 이상 아구창이나 폐렴과 같은 기회감염증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면역 기능이 회복된 환자는 폐렴 예방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환자들은 약을 끊으면 다시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카테일 치료를 하더라도 약물이 잘 침투할 수 없는 중추신경계, 생식기관, 세포내의 핵, 림프절은 에이즈바이러스의 은신처가 됩니다. 여기에 숨어 있던 바이러스는 약을 끊으면 증식하여 혈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은신처에 숨어있는 바이러스를 공격할 수 있는 치료법이 개발된다면 에이즈가 완치될 것입니다. 그 날이 머지 않아 올 것



으로 기대하면서, 그때까지는 카테일 치료를 계속해야 합니다. 약을 수년동안 먹는데 따르는 신체적인 부작용과 경제적인 부담도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에이즈는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치료를 받으면 혈액내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면역 기능이 회복되어 기회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약을 끊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혈압 환자는 혈압약을 끊으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평생동안 고혈압약을 먹어야 합니다. 당뇨병도 평생동안 치료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불치의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에이즈도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만성병입니다. ㉞